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0일 화요일 음 8월 25일 (2물)

한라칼럼

기상정보

흐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21℃ 내외, 낮 최고기온은 24-25℃로 예상된다. 제주도바깥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6.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2 columns: 오전 (Morning) and 오후 (Afternoon).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y (10%, 20%, 0%, 0%) and humidity (제주, 성산, 고산, 서귀포).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Sunrise) and 달뜨기 (Sunset). Rows show times for 해돋이 (06:20, 18:34) and 달뜨기 (00:32, 15:36).

식중독지수 위험, 자외선지수 높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19/24℃, 모레 구름 많음 20/25℃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중 코로나19 이송버스 대형참사에 사과

과도한 방역 정책이 비난 확산

중국 지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명목으로 주민들을 격리시설로 이송하던 중 발생한 대형 참사에 사과했다.



중국 코로나19 검사, 연합뉴스

중국 구이저우성 성도 구이양시의 링강 부시장은 18일(현지시간) 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인민대중의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며 "시 위원회와 시 정부를 대표해 모든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시의 한 격리호텔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탑승객들이 코로나19 감염자 인지 밀접 접촉자인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8일 오전 2시 40분쯤 구이저우성 첸난부이·마오족자치주 한 고속도로에서 47명이 탄 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해 27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버스 탑승자들이 감염자가 아니라 감염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사고 차량은 구이양시에서 코로나19 관련 인원을 태우고 인근 도

시에서 한 격리호텔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탑승객들이 코로나19 감염자 인지 밀접 접촉자인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꽃자왈의 가을



송관필 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주) 대표이사

꽃자왈의 가을은 '졸갱이'(으름 열매), '불레'(보리수나무 열매), '멍'(뽕열매) 등 먹을 것을 따먹으러 다니고, '지들개'(뽕갈)도 하고, 새(띠)를 베어다가 누름(벼과 식물로 만드는 이영)을 만들어 지방도 수선하는 시기이다. 또한 가족의 먹이를 채집하는 등 참 분주히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니고, 소나 말들도 겨울 내 마구간(쇠막)에 들어가기 전 살을 찌우는 공간이었다. 이와 같이 현대의 최신과학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의 꽃자왈 지역은 나무가 크지

꽃자왈의 가을

못하고 '졸갱'이나 목장 그리고 키 작은 숲으로 이뤄져 있었고 키 큰 숲은 지금과 같이 넓지 않았다.

현재의 꽃자왈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원료의 등장으로 위와 같은 형태의 이용이 이뤄지지 않고 방치됐고 주변으로 조림이 이뤄지면서 키가 큰 숲이 넓게 분포하게 됐다. 숲은 주변의 농경지에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숲의 발달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되고 있다.

꽃자왈 지역의 수림은 한경안덕 꽃자왈 지역의 문도지오름과 남송이오름 아래쪽에 주로 분포하는 지역과 북오름에서 시작된 상록활엽수림이 있고, 도너리오름 바로 아래의 지역과 노꼬메오름에서 시작된 애월꽃자왈, 병약에서 시작된 안덕꽃자왈, 민오름에서 시작된 교래꽃자왈, 동겨문오름에서 시작된

특산꽃자왈 등의 낙엽활엽수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림에 따라 숲의 가을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은 낙엽활엽수가 우점하는 지역이며 상록활엽수가 우점하는 지역에서는 가을 정취가 잘 느껴지지 못한다.

꽃자왈지역의 낙엽활엽수림은 낙엽활엽수가 우점은 하지만 상록수인 생달나무, 참식나무, 새덕이,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등이 높이 6~12m 까지도 자라는 개체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라산에서나 내륙에서 느끼는 가을과는 조금 다르다.

특히 꽃자왈에는 가을을 대표하는 단풍나무가 분포하고 있지만 제주의 따뜻한 기후와 작은 일교차 때문에 화려한 단풍이 들지 않는다.

우리는 기후의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느낀다.

특히 꽃자왈이 분포하는 해발 600m 이하 지역은 완연한 아열대기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현재 혼효림으로 구성돼 있는 꽃자왈 지역은 멀지 않은 미래에 종가시나무, 후박나무, 구실잣나무 등이 점차 들어와 상록활엽수림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낙엽활엽수림이 우점하고 있는 지역도 상록활엽수와 낙엽활엽수가 혼재하는 숲으로 바뀔 것이다. 또한 비가 많아지고 기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토양에 영양분이 빠르게 생성되고 이후 숲은 더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의 꽃자왈 이용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급히 수정해야할 부분은 수정하고, 앞으로 꽃자왈을 어떻게 이용·관리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찰이 필요할 때다.

열린마당

악성사기는 '경제적 살인'



정 의 원 제주경찰청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 경감

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악성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온라인 투자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투자 사기는 단기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죄로, 최근 피해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 첫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높은 수익률, 대리투자(리딩), 무료 투자 상담 등을 앞세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연결된 URL로 허위 사이트 접속 또는 전화를 유도한다.

예술공간 확장실



한 민 영 서귀포시 표현선사무소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하울과 소피가 비밀의 뜰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벽에 비춰지고 과수원을 담은 듯한 싱그러움 향이 코를 감싸는 곳. 예술공간이 아니라 제주 어느 한 카페의 확장실 풍경이다.

요즘에는 카페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확장실을 청경하면서 예쁘게 꾸며 놓아 깜짝 놀랄 때가 많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확장실은 대부분 재래식이어서 불결하기 이를데 없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확장실 개선 사업을 추진했고 오랜 기간 대 국민 캠페인을 진행해 지

금의 확장실 문화 선진국에 올라 화변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현대식 변기가 대다수다.

어느새 확장실 문화는 선진국의 척도가 돼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택에 낡고 위험한 화변기를 사용 중으로 위생과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가 많다.

서귀포시에서는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주민 가구와 미관저해, 관광지 주변, 환경오염 등 보건위생 취약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200만원(추가비용자 부담)이다. 사업 지원 희망자는 건축물대장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Advertisement for '감골묘목' (Grass seedlings) featuring '탱지묘목 2년생 8만본 판매' and '석파농산'.

Advertisement for '감골 신제품 분양' (Grass new product distribution) for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Advertisement for '제주시정소식' (Jeju City News) listing various events and programs.

Advertisement for '주간 농업농촌소식' (Weekly Agriculture and Rural News) listing agricultural programs and support.